

## 간호대학생의 하브루타 수업 참여 경험: 현상학적 연구

양정하<sup>1</sup>, 이윤주<sup>2\*</sup>

<sup>1</sup>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Habruta Teaching Method: A Phenomenological Study

Jeongha Yang<sup>1</sup>, Yunju Lee<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Suw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공교과목의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확인하여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하브루타 수업 참여 경험은 '걱정과 기대의 공존', '이해와 습득의 과정', '지속적인 부담과 불편함', '압박감 속에서 나아감과 퇴보함', '인정받으며 찾아가는 안정감', '긍정으로의 생각전환'의 6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하브루타 수업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수업설계, 교수-학생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 마련 및 교수자의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하브루타 교수법, 전공교과목, 현상학, 경험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essence by confirming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Habruta classes in their major subjects. From November 22, 2022 to December 6, 2022, eight nursing student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to collect dat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ology. The study's finding derived 6 categories. The specific categories were 'Coexistence of anxiety and expectation',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acquisition', 'Constant burden and discomfort', 'Progress and regression under pressure', 'Sense of security that is being recognized', 'Shift of thought to positivity'. In order for nurs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Havruta classes positively in the future, appropriate class design, activ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strengthening of instructors' competence are requir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Habruta teaching method, Major subject, Phenomenology,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Yunju Lee(daminizimin@naver.com)

Received August 2, 2023

Accepted October 20, 2023

Revised September 4, 2023

Published October 28,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교육의 주체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1]. 즉,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면서 고차원적 능력과 다양한 역량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법과 교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런 변화와 발맞추어 간호대학 수업에서 플립드 러닝, 사례기반 학습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수업방식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3, 4].

하브루타 교수법은 배움이 교수에서 시작된다는 가정을 보류하고 배움이 학생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5]. 이런 수업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수법과 다르게 학습자의 역량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짝을 지어 질문하거나, 대화, 토론, 논쟁 등을 통하여 사고의 과정을 개발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6]. 하브루타 학습법은 유대인의 교육방식으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학생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강요하기보다 서로 협력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활동에 집중한다[7]. 학생들은 서로 협업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서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고력과 집중력이 호전되고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된다[5]. 기존 문헌을 살펴본 결과, 하브루타 수업법은 학생의 학습 만족도[8,9], 의사소통능력[10],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11,12] 자기효능감[9,12] 학습몰입[8]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10]과 문제해결능력[10]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브루타 수업을 위한 학습모형은 질문중심 하브루타, 논쟁중심 하브루타, 비교중심 하브루타, 친구가르치기 하브루타 및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가 있다[13]. 간호대학생의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 가지 학습모형[8,9]을 적용한 사례부터 두 가지 학습모형[10,14]을 적용한 사례와 다섯 가지 학습모형[12]을 모두 적용한 사례도 있다.

간호대학생은 '많은 생각을 유발하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 [15]하거나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16]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브루타 수업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고의 확장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의사소

통능력[10],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11,12]과 학습몰입[8] 등을 향상하기에 간호교육에서 좋은 수업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교수학습 전략일 것이다. 간호윤리[14], 간호과정[12], 기본간호학[9], 성인간호학[8], 지역사회간호학[10,11] 등 다양한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하브루타 수업이 적용되고 있지만, 좋은 수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업모형인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본질적인 참여 경험을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관점에서 하브루타 수업에 대한 참여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 [17]의 질적 분석방법은 하브루타 교수법을 적용한 전공교과목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공통의 속성과 주제를 유추하고 이를 통합하여 경험의 본질을 진술하는데 적절하다고 고려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하브루타 수업 참여 경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체험이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학습자 주도형 간호 교육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의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Colaizzi[17]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 2.2 하브루타 수업방법

본 연구에서 여성건강간호학 하브루타 수업은 1단계 수업자료 개발, 2단계 적합한 하브루타 수업안 설계, 3단계 하브루타 수업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에서 수업자료는 임신부터 출산 후 간호에 대한 총 5회기로 구성된 후 개발된 강의자료를 여성건강간호학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2단계 적합한 하브루타 수업안 설계는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기반으로 질문만 들기와 문제만들기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전공교과목에서 파일럿 테스트 한 결과 수업 시간 내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단계 수업 운영은 학습 주제별 50분 강의와 50분 하브루타 수업으로,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주제와 하브루타 교수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강의 후 진행된 질문만들기는 개인별로 질문을 만든 후 짝과 함께 우수한 질문을 선정한 후 모둠토론을 통해 최고의 질문을 뽑도록 하였다. 이후 문제만들기도 동일한 과정으로 개인이 먼저 문제를 만들고 짝과 토론하여 문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후 모둠에서 난이도별 우수한 문제를 선정한 후 모둠별 문제를 맞히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하브루타 수업 설계는 다음과 같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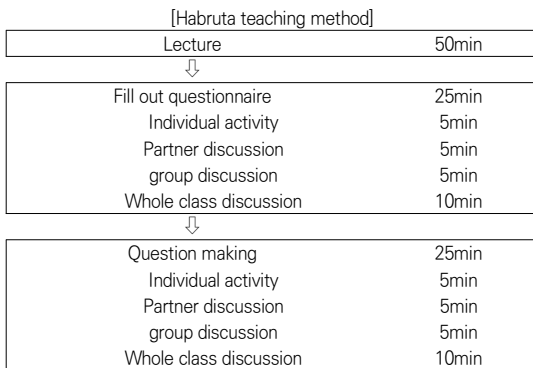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the study participants

### 2.3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S대학 간호대학생 중 여성건강간호학 하브루타 수업을 경험한 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는 자료의 포화(saturation)를 고려한 결과, 간호대학생 8명으로 선정되었고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22세 7명, 23세 1명이었다. 참여자 중 선호하는 가장 수업방식은 강의식 6명, 토의식 1명, 시범 또는 실습 1명이었다. 이들 중 7명은 참여형 수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2.4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매년 질적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세미나에 참여하고 연 1편 이상의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게재하였다.

###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 하브루타 수업을 9월부터 7주간의 집중이론 수업방식에 종료한 후, 간호학과 홈페이지에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2022년 11월 1일 게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관찰

과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COVID-19 상황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연구참여자는 대면 면담과 비대면 면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면 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 연구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녹취된다는 점과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종료 후 즉각적으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철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 학생과의 심층적인 면담 시 '여성건강간호학 하브루타 수업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참여자의 답변을 들으며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종료된 후의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진행한다고 들었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하브루타 학습법에 질문과 문제만들기 참여에서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브루타 학습법의 그룹참여에서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이었다.

연구참여자별 면담은 현장 노트를 사용하여 관찰되는 내용이나 당시 연구자의 생각을 적었으며 연구참여자간 면담시간은 최소 45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은 1회로 종료한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질문은 전화로 보완하였다. 면담 직후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필사하고 반복적인 청취를 통해 경험을 깊이 있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종료 후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 2.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17]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읽고 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이후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Colaizzi[17]에서 제시한 자료분석 방법은 자료에서 기술된 내용을 읽고 현상에 관련된 구나 문장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한다. 이후 의미 있는 내용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재진술한 후 구성된 의미를 이끌어 낸 후 그 의미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진술 중 현상과 관련된 의미단위 240개를 도출한 후 비슷한 속성의 진술을 다시 확

인하며 90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구성하였다. 이를 주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31개의 주제, 14개의 주제모음 및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주제가 일치하는지를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8]의 엄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관성 및 적용성, 사실적 가치, 중립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Colaizzi의 6단계 자료 분석과정을 적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동일 상황의 간호대학생 3명에게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결과, 공감의 피드백을 받았기에 적용성이 보증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의 사실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질적 경험이 풍부한 교수 2인에게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들에게 진술이 분석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 결과 일치한다고 답변받았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 판단 중지하고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진술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하브루타 학습경험은 걱정과 기대의 공존, 이해와 습득의 과정, 지속적인 부담과 불편함, 압박감 속에서 나아감과 회복감, 인정받으며 찾아가는 안정감, 긍정으로의 생각 전환 등 6개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 3.1 범주 1. 걱정과 기대의 공존

##### 3.1.1 모호함으로 인해 불안함

이 주제모음은 '새로운 수업에 대한 궁금함보다 걱정이 우선임', '시간에 맞게 수업이 진행될지 걱정함', '수업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짐'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낯선 수업방식을 대함에 있어 교수로부터 수업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부터 그 이후에도 익숙하지 않음에서 발생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브루타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고 낯설게 느껴져서 잘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습니다."(참여자 1)*

*"강의식으로만 수업 듣다가 이렇게 수업한다고 들었을 때*

*는 이렇게도 수업이 될까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많은 분량을 나갈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4)*

##### 3.1.2 익숙하지 않은 수업이 어려움

이 주제모음은 '문제를 만들기가 막막함', '부족한 자신을 걱정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능동적으로 학습 후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토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상당하였다.

*"처음 하브루타 했던 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참여자 7)*

*"이론할 때, 빨리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수업 자체도 빠르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빨리빨리 이해를 못 하면은 그거는 이제 혼자 해야 하는데 혼자 할 때도 약간 틀리게 이해할까 봐. 제가 공부한 내용이 약간 잘못 이해할까 봐 걱정이 좀 됐다 또 틀리게 이해했을까 봐 또 걱정됐어요..."(참여자 2).*

##### 3.1.3 좋은 결과를 기대함

이 주제모음은 '높은 성적을 기대함', '새로움을 기대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해보는 수업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하면서도 새롭게 진행되는 방식에서 자신들이 얻게 될 그 무엇인가에 대해 기대하고 그것이 성적으로까지 연결되기를 바랐다.

*"태도 점수에 들어가고 그런 거 다 포함되니까 열심히 착실하게 쓰자. 그때 그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조원들도 바뀌가면서 한다고 들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만날 그냥 항상 같은 친구들이랑 앉고 그러니까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3.2 범주 2. 이해와 습득의 과정

##### 3.2.1 수업내용을 잘 이해함

이 주제모음은 '선행학습과정에서 이해가 확대됨', '토론과정에서 이해가 확대됨', '발표과정에서 이해가 확대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하브루타 수업의 선행학

습, 질문만들기 후 조별 토론, 조별 발표 등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막상 (강의)수업 시간 되서는 (미리 교재에서)봤던 걸 한 번 더 들으니까, 앞에서 배울 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참여자 5).*

*“질문 만들고 친구들이랑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한 번 더 깨닫는 게 있어서 그 과정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4).*

### 3.2.2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함

이 주제모음은 ‘우선 순위로 학습할 중요 내용에 집중함’, ‘반복과정을 통해 수업내용을 잘 기억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능동적으로 학습한 후 조원들과 만든 문제를 수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잘하였다.

*“그냥 짜잘한 거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만 쑥쑥 하는 게 더 공부할 때도 편하고 기억도 더 오래 남고 편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2)*

*“딱 이론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룹 활동을 넣으니까 조금 더 학습을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8).*

## 3.3 범주 3. 지속적인 부담과 불편함

### 3.3.1 관계 속에서 불편해함

이 주제모음은 ‘낮선 조원과 불편하게 토론함’, ‘수업 진행 과정에서 위축됨’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사전학습을 시행하고 각자가 만든 문제를 제시하고 우수한 문제를 뽑는 등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불편감을 경험하며 친하지 않은 학생과 조원이 되거나 문제가 선정되지 않으면 더욱 긴장하며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평소에 말을 잘 안 해봤던 사람들이랑 섞여서 토론했을 때는 그냥 진짜 의무감으로 한 문제씩 자기가 괜찮은 거 하나씩만 쓰자 이렇게만 끝냈던 것 같아요.”(참여자 6)*

*“발표할 때 제가 틀리고 애들이 다 맞으면 ‘나 망했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냥 줌...쪼그라드는 마음인가..”(참여자 2)*

### 3.3.2 물리적, 심리적인 부담을 경험함

이 주제모음은 ‘수업에 대해 물리적으로 부담을 느낌’,

‘수업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낌’ 및 ‘예상을 벗어난 진행에 어려움을 경험함’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배우지 않은 수업내용을 사전학습하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토론이나 발표 등이 조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발표하려고 하던 문제가 다른 조에서 먼저 발표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문제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대처도 하였다.

*“초반에는 다시 공부할 양도 너무 많고 뭔가 진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시 복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참여자 5)*

*“이번 3학년이 대면(수업)이 처음이어서 아직 친구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틀릴까 봐 살짝 걱정도 되었어요.”(참여자 2)*

*“발표 시 문제를 읽고 답을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길면 그 문항이 튀었는지 기억도 안나고 전체적으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참여자 3)*

## 3.4 범주 4. 압박감 속에서 나아감과 퇴보함

### 3.4.1 도움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함

이 주제모음은 ‘수업에 대한 동기가 저하됨’, ‘토론 시간에 집중이 저하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낯선 수업에 관해 부담도 컸지만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실제 참여를 하며 부담 속에서 동기가 저하되고 조원들이 함께 고민하며 수업에 집중하기보다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늘어놓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1회차 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뻔뻔하게 재웠던 친구였는데 갈수록 대충대충 쓰는 것 같아서 점점 이 수업이 재미가 없나 이걸 느끼게 되었어요.”(참여자 1)*

*“친한 애들끼리 계속하다 보면 계속 떠들게 되고 계속조를 바꾸다 보면 또 낯선 애들이랑 있으면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도 잘 못했어요.”(참여자 8)*

### 3.4.2 빠른 진행에 초점을 맞춤

이 주제모음은 ‘논의과정을 빠르게 진행함’, ‘토론을 단순화시켜 진행함’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참여자는 조별 토론과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가능하다면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적용하였다.

*“각자가 5개씩 써온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고 그냥 하나, 자기가 하나 정해서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통보하는 식이었어요.”(참여자 2)

“논쟁 없이 뭐랄까 그냥 간단하게 투표 식으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이 편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논쟁하지는 않았어요.”(참여자 4)

### 3.4.3 촉박함 속에서 건담

이 주제모음은 ‘부족한 시간에 대해 압박감을 받음’, ‘수업에 적응하며 익숙해짐’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특히 수업 자체를 이해하기 필요했던 초반에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며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조금씩 적응해 나가긴 했지만, 압박감은 내내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뭔가 수업이 더 빠빠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쫓아가기 힘들었어요.”(참여자 7)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하고 나서는 좀 적응이 돼서 뭔가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익숙해져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3.5 범주 5. 인정받으며 찾아가는 안정감

### 3.5.1 노력한 부분에 심리적 보상을 받음

이 주제모음은 ‘동일함에서 성취감을 느낌’, ‘우수질문이 되면서 뿌듯함을 느낌’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사전학습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닌 이후 자신이 만든 문제를 조원들과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비교가 존재하였고 그중 조원이나 다른 조의 문제가 자신과 같으면 그 자체로 뭔가 이룬 느낌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우수한 질문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그동안의 걱정을 다 씻어 내며 기쁨을 주었다고 하였다.

“나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초점을 되게 잘 잡았구나, 이 수업의 포인트가 이제 맞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나 공부 좀 제대로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1)

“우수 문제로 뽑혔을 때, 애들한테 내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헛되게 하지 않았구나.”(참여자 8)

### 3.5.2 심정적으로 편안해짐

이 주제모음은 ‘문제의 동일함에서 안도감을 느낌’, ‘친한 친구들과 의견 나눔으로 편안함을 느낌’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문제를 만들어 조원들과 나누고

우수한 문제를 선정하고 발표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부분이 제시되는 그 순간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친한 조원들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편안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무래도 진짜 그냥 앞에도 말을 했긴 했는데,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생각한 포인트가 같았을 때 정말 너무 똑같은 말 반복 같긴 한데 그냥 성취감 안도감 그런 거... 자존감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참여자 3)

“친한 친구들과 할 때는 서로 이 문제는 좀 더 낫고 이 문제는 조금 별로인데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 선에서 깔끔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참여자 6)

## 3.6 범주 6. 긍정으로의 생각전환

### 3.6.1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함

이 주제모음은 ‘수업에 대해 학습동기가 강화됨’,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업내용을 일방적으로 받는 강의식이 아닌 다른 조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들어야겠다고 느꼈어요. 뭐랄까 욕심 승부욕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참여자 7)

“각자 문제 이게 맞나 이렇게 상중하로 문제를 얘기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문제를 각각 얘기하고 난이도 별로 얘기를 한 다음에 각자 괜찮은 문제를 뽑고 거기서 또 상중하로 난이도를 나눠서 할 때는 그렇게 토론할 때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 3.6.2 새로운 경험 속에서 깨우침의 기회를 얻음

이 주제모음은 ‘토론과정을 통한 자신의 학습방법을 지각함’, ‘생각하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업 과정에서 걱정도 많고 부담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새롭게 참여한 수업방식에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 불편할 것만 같았던 조별 토론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알아가는 등의 경험도 하였다.

“토론하면서 내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랐나 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 더 하고 선행학습 해 와서 다시

Table 1. Experience on havruta teaching method among participants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Worries take precedence over curiosity about new classes	Anxious due to ambiguity	Coexistence of anxiety and expectation
Worried about whether class will be on time		
Having doubts about the class itself		
Hard to create problems	Difficulty in unfamiliar classes	
Worried about the lack of self		
Expectation of high performance	Expecting a good result	
Expectation of novelty		
Expanding understanding in the pre-learning process	Better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acquisition
Expanding understanding in the course of discussion		
Expanding understanding in presentation process		
Focus on important content to learn as a priority	Identify and remember important content	
Remembered the contents of the class well through the repetition process		
Having uncomfortable discussion with unfamiliar team members	Feeling uncomfortable in a relationship	
Distracted during the course of the class		
Feeling physically burdened for class	Experienc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dens	
Feeling psychologically burdened for class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unexpected progress		
Decreased motivation for class		
Loss of concentration during discussions	Selecting an unhelpful method	Progress and regression under pressure
Expedite the discussion process	Focus on fast progress	
Simplifying the discussion		
Feeling pressured for the lack of time	Enduring in a hurry	
Adapting to class and getting used to it		
Get a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being the same	Psychological reward for one's efforts	
Feeling proud of being an excellent question		
Feeling relieved from the sameness of the matter	psychological comfort	
Feel comfortable sharing opinions with close friends		
Learning motivation strengthened for class	Engage more actively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class		
Self-awareness of one's learning method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Chance to enlighten in a new experience	Shift of thought to positivity
Experiencing unexpected positive changes		

봐봐야겠다. 미리 프린트나 교과서 읽어보고 제가 뽑아와서 이 문제가 혹시 전의 앞에 나온 내용이란 비슷한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노력했어요.”(참여자 1)

“저는 뭔가 중요한 것에만 꽂히게 돼서 다른 걸 잘 안 보게 되는데 친구들 것 보면서 그런 게 조금 없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많이 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내 생각에서 좀 이제 좀 확장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교과목의 하브루타 수업 참여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하브루타 수업 참여 경험은 ‘걱정과 기대의 공존’, ‘이해와 습득의 과정’, ‘지속적인 부담과 불편감’, ‘압박감 속에서 나아감과 회복감’, ‘인정받으며 찾아가는 안정감’, ‘긍정으로의 생각 전환’의 6개 범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첫 번째 범주인 ‘걱정과 기대의 공존’은 간호대학생들은 처음 경험하는 수업형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낯선 수업방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Ha와 Lee[20]의 연구에서는 이전에 접해본 적이 있는 하브루타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이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수업에 적응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사전 수업에 대해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21]고 제안한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교수는 학생의 불안과 기대의 상반된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식을 줄이며 긍정적으로 수용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수업 시작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중에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범주인 ‘이해와 습득의 과정’은 간호대학생이 학습 주제에 대한 선행학습과 토론 및 발표과정을 통해

수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지식으로 더욱 기억을 잘하게 되었다. Byon[22]의 연구에서 하브루타 학습은 학생이 수업내용을 더 확실히 학습하고 장기기억화 하는 등 학습자의 인지능력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교수자는 짝 토론과 모둠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거나 발표 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보충 설명 등을 제공하고 수업을 지원한다. 이에 학생이 수업에 주체가 되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교수자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정된 질문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하브루타 학습전략에 대한 워크숍 등에 참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업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범주로 '지속적인 부담과 불편함'은 새로운 수업방식의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 지속된 부분으로 낮섬, 요구되는 협력, 심리적인 위축감 및 소통의 어려움 등의 복합성이 존재할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학생 주도형 수업을 경험한 학생이 참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주도성이 함양되고[23], Ha와 Lee[20]의 연구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Ha와 Lee[20]의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이전에도 하브루타 교수법을 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입학 때부터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 간 라포(Rapport)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논의와 토론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Byon[22]의 연구에서 짝꿍이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으면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 내용과는 일맥상통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기에 대학에 입학하여 2년 동안 대부분의 교과목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받은 상황으로 친구끼리의 라포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논의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브루타 수업을 운영하기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 이해 및 감정 표현 증대를 통해 대인관계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24]을 실시함으로써 증대 초반에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일 때 하브루타 수업을 설계하면서 학생 간 라포형성 및 의사소통 향상 전략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범주인 '압박감 속에서 나아감과 퇴보함'은 전공교과목에서 지식 습득을 위한 강의와 하브루타 수업을 통한 논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간호대학

생의 적응 경험을 담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 토론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논의과정을 빨리 진행해버리거나 토론과정을 단순화하는 등의 하브루타 학습의 역기능 향상도 경험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수업 참여 횟수가 증가하면서 수업에 적응하며 익숙해짐을 느끼기도 했다. 따라서 하브루타 연구설계 시 수업 운영 초반에는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낄 수 있게 학습의 분량과 난이도를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브루타 학습 모형 중 수업 적용에 적합한 방식에 대한 사전 요구조사를 파악하고 그를 적용해 보는 것도 제안한다.

다섯 번째 범주는 '인정받으며 찾아가는 안정감'으로 간호대학생은 짝토론과 모둠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문제가 우수한 질문으로 선정되면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Ha와 Lee[20]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하브루타 수업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문제 내는 능력이 향상되고 우수한 질문을 만들고 팀별 최고의 문제로 채택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은 막연함에서 느끼던 불안감이 자신이 개발한 문제가 선정되는 과정을 통해 불안감은 감소하고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이런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만큼[25],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하브루타 수업을 전공교과목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범주는 '긍정으로의 생각 전환'으로 간호대학생은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 동기가 강화되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브루타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뿐 아니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의 정서적 측면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Byon[22]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Ha와 Lee[20]는 하브루타 학습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도 알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수업 방식에 참여하며 어려운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는 만큼[24] 하브루타



수업의 긍정성을 교수자가 온전하게 인식하고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학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교과목의 특성상 수업 시간마다 학습해야 할 학습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가지 방법을 활용한 하브루타 수업 설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생 주도형 교수법을 적용하는 전공교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교과목 지정을 통해 상대평가 교과목에서 갖는 경쟁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협력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산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호학 전공교과목 중에 일부 교과목에서 하브루타 학습경험을 분석하였고, 또한 5가지 하브루타 학습 모형[21] 중 문제만들기와 질문만들기를 적용한 수업방식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만을 다뤘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하브루타 수업 참여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고시 교과목과 연계되어 주로 강의식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의 학습자 주도형 교수학습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교과목의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한 그들의 본질적인 경험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학습자 주도형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하브루타 수업 참여 경험은 '걱정과 기대의 공존', '이해와 습득의 과정', '지속적인 부담과 불편감', '압박감 속에서 나아감과 퇴보함', '인정받으며 찾아가는 안정감', '긍정으로의 생각 전환'의 6개 범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활용한 하브루타 교수법 운용 시 오리엔테이션의 강화, 학생 간 라포 형성 및 의사소통 향상 전략 등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는 깨달음의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 전공교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전략 개발에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 주도형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추후 간호학의 여러 교과목에서 다양한 형태의 하브루타 학습전략을 적용한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하브루타 수업의 주체인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더불어 하브루타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수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루타 수업의 주체인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더불어 하브루타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수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H. K. Jho. (2017). The changes of future socie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asks of school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6(3), 286-301. DOI : 10.15267/keses.2017.36.3.286
- [2] D. Kember. (2009). Promoting student-centered forms of learning across an entire university. *Higher Education*, 58(1), 1-13. DOI : 10.1007/s10734-008-9177-6
- [3] M. H. Lee. & M. S. Park. (2016). The effect of case-based learning (CBL)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pathophysiology cours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8(3), 176-184.
- [4] C. S. Shim. (2019). Study on the effects of flip learning-based simulation education on the flow, learning confid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8), 541-549. DOI : 10.21184/jkeia.2019.12.13.8.541
- [5] S. B. Kim. (2015).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college teaching methods through the adaptation of havruta-teaching methods-centered way. *Theology and Ministry*, 44, 389-415.
- [6] S. Y. Jung. & M. S. Kim.(2022). Effect of online havruta activity based on interpretive questioning on constructivist education view of pre-secondary secondary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3), 691-703. DOI : 10.22251/jlcci.2022.22.3.691
- [7] Kent O. (2010).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76(3), 215-245. DOI : 10.1080/15244113.2010.501499

- [8] Lim SH. (2019). The effects of adult nursing education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commit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havrutalearn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547-554. DOI : 10.5762/KAIS.2019.20.7.547
- [9] Y. M. Jang. (2020). The Effects of havruta-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5), 1366-1377. DOI : 10.12925/jkocs.2020.37.5.1366
- [10] J. H. Ha. & H. J. Lee. (2020).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31(3), 337-347. DOI : 10.12799/jkachn.2020.31.3.337
- [11] M. L. Jung. & E. Jeong. (2020). Effects of havrutalearning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4), 2269-2284. DOI : 10.22143/HSS21.11.4.160
- [12] Y. J. Lee. (2020). The effects of the havruta learning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1279-1295. DOI : 10.22251/jlcci.2020.20.8.1279
- [13] B. S. Jang. (2018). A meta-analysis for the effects of havruta learning in Kor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2), 1-24.
- [14] J. Y. Kim. & H. S. Choi. (2020). Havruta learning method to improve nursing students' moral sensitivity, moral reasoning and creative persona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 419-436. DOI : 10.22251/jlcci.2020.20.12.419
- [15] I. S. Ko, J. S. Kim. & J. M. Lee. (2019). Good teaching and desirable teaching behavior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4), 496-507. DOI : 10.5977/jkasne.2019.25.4.496
- [16] M. N. Park. & S. J. Shin. (2020). Nurses and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of good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1), 101-115. DOI : 10.4040/jkan.2020.50.1.101
- [17]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e, R. & King, M. (2nd 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18]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19] S. M. Hong. & S. H. Kim. (2020). An integrative review of learning experiences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2), 111-122. DOI : 10.5977/jkasne.2020.26.2.111
- [20] J. H. Ha. & H. J. Lee. (2020). Students' experience in nursing majors classes applied by havruta teaching method.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0), 211-225. DOI : 10.22251/jlcci.2021.21.20.211
- [21] B. S. Jang. (2018). A meta-analysis for the effects of havruta learning in Korea.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2), 1-24.
- [22] K. H. Byon. (2022). Effect of designing and applying child health education classes based on the havruta learning method.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1), 3123-3133. DOI : 10.22143/HSS21.13.1.221
- [23] S. Y. Song. (2022). A narrative inquiry of high school student's 'history class based on student agency' experience.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Society*, 161, 125-180. DOI : 10.18622/kher.2022.03.161.125
- [24] O. S. Lee. & G. M. Ock.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682-696. DOI : 10.4040/jkan.2014.44.6.682
- [25] M. Y. Yu. & S. J. Lee. (2023).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7(1), 66-79.*  
DOI : 10.5932/JKPHN.2023.37.1.

양 정 하(Jeongha Y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2년 4월~현재 :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교수학습, 회복탄력성
- E-Mail : mint2243@hotmail.com

이 윤 주(Yun 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직장 내 괴롭힘, 대인관계, 자살
- E-Mail : daminzimin@naver.com